앨런 튜링

앨런 매티슨 튜링(영어: Alan Mathison Turing, OBE, FRS, 1912년 6월 23일 ~ 1954년 6월 7일)은 영국의 수학자, 암호학자, 논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의 선구적 인물이다. 알고리즘과 계산 개념을 튜링 기계라는 추상 모델을 통해 형식화함으로써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.[2][3][4] 튜링 테스트의 고안으로도 유명하다. ACM에서 컴퓨터 과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매년 시상하는 튜링상은 그의 이름을 따 제정한 것이다. 이론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"컴퓨터 과학의 아버지"라고 불린다.

1945년에 그가 고안한 튜링 머신은 초보적 형태의 컴퓨터로,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. 하지만 튜링은 1952년에 당시에는 범죄로 취급되던 동성애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.[5] 감옥에 가는 대신 화학적 거세를 받아야 했던 그는, 2년 뒤 청산가리를 넣은 사과를 먹고 자살했다.[5]

사후 59년만인 2013년 12월 24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튜링의 동성애 죄를 사면하였다. 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되었다.[5]

|  |  |
| --- | --- |
| 연도 | 요약 |
| 1912년 | 6월 23일 앨런 매시슨 튜링(Alan Mathison Turing), 런던에서 출생. 아버지 줄리어스 매시슨 튜링(Julius Mathison Turing), 어머니 에설 사라(Ethel Sara) |
| 1926년 | 셔본 스쿨(Sherborne School) 입학 |
| 1931년 | 수학 연구를 위해 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 입학 |
| 1934년 | 수학 학사학위 취득 |
| 1935년 | 확률론 계산에서 중심극한정리에 관한 학위논문으로 킹스 칼리지 특별 연구원 취득 |
| 1936년 | 다비트 힐베르트가 제시한 결정가능성 문제(Entscheidungsproblem)의 부정적 결과 증명 |
| 알론조 처치, 존 폰 노이만 등과 함께 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 지속 |
| 1937년 | 《런던 수학협회 의사록》 중 〈계산 가능한 수와 결정할 문제에의 응용〉 출간 |
|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프록터(Procter)장학금 수여 |
| 1938년 | 영국으로 들어와 정부암호학교(Goverment Code and Cypher School; GCCS)에서 암호학 수업 |
| 1939년 | 9월 1일, 제2차 세계 대전 시작 |
| 블레츨리 파크(Bletchley Park)의 GCCS 부서에서 영국을 포위하고 있는 독일 해군의 무선메시지 해독 작업 수행 |
| 1942년 | GCCS를 위한 수석 연구 자문위원 |
| 미국 암호부서와의 접촉을 위해 미국에 비밀리에 입국 |
| 1943년 | 1-3월간 벨 연구소에서 음성 해독 문제에 관해 작업 |
| 1944년 | 음성 암호화 전자기 델리아(Deliah) Ⅰ에 대한 작업 실시 |
| 1945년 |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|
| 컴퓨터의 자동 계산 기계(Automatic Computing Engine; ACE)를 구축하기 위해 테딩턴에 있는 국립물리연구소(NPL)에 들어감 |
| 1947년 | 행정적, 이론적 이유로 NPL을 떠나 케임브리지로 돌아옴 |
| 생리학과 신경과학 수업 수강 |
| 1948년 | 6월 실용화될 컴퓨터의 원형에 대한 작업을 위해 맨체스터 대학교 정보과학팀 합류 |
| 1950년 | 철학지 《Mind》에 논문 〈계산기와 지능〉 게재 |
| 1951년 | 왕립 학회 특별회원으로 선출 |
| 동성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는 형을 받음 |
| 1952년 | 《왕립 학회 회보》에 논문 〈형태 발생의 화학적 토대〉게재 |
| 1954년 | 약간의 사이안화 칼륨에 담가 놓았던 사과를 먹음으로써 윔슬로에 있는 자택에서 6월 7일 42세의 나이로 자살 |
| 2013년 | (사망 이후) 동성애 혐의에 대한 유죄가 정식으로 국왕 칙령을 통하여 사면됨 |